

충남 주요 과수 수입 및 비용 항목별 변동 분석

이철희*, 조숙희*, 윤덕상*, 김학현*, 김나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mail:Lch5127@korea.kr

The Analysis of Variability of Time-series Data of Major Fruit Farmer's Management
in Chungcheongnam-do

Cheol-Hwi Lee*, Suk-Hee Jo*, Tug-Sang Yun*, Hak-Hun Kim*, Na-Hyun Kim*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약

충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과수 사과, 배, 노지포도의 최근 10년간 수익과 비용의 항목별 변동성을 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소득자료(2014~2023)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전국과 충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국의 작목별 농가 분포를 보면 사과 207, 배 165, 노지포도 204농가 였다. 여기에 충남 농가 구성은 사과 18, 배 25, 노지포도 15농가 였다. 분석 대상은 총수입, 중간재비, 임차료, 용역비, 경영지표값이다. 분석내용은 최근 10년간 경영지표의 변동 추세선 도출, 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분석이다. 첫 번째 최근 10년간 주요 과수 소득 변화 흐름도를 분석하였다. 사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과 충남을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2015년 이후로 전국이 충남에 비하여 높았다. 경영비의 경우는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최근 2023년에는 충남이 높아졌다. 이것은 과수원조성비가 증가하며 나타난 현상 같다. 소득의 경우는 작은 격차이지만 2015년 이후로 전국평균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최근 2021년 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의 경우는 2020년까지는 전국과 충남이 비슷하게 유지하여 왔지만 2020년 이후로 전국이 충남을 앞서고 있다. 노지포도의 경우는 경영비는 충남이 전국에 비하여 낮지만 총수입 차이가 커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전국이 충남을 앞서고 있다. 두 번째 작목별 경영비 항목별 비중 변화값을 보았다. 사과의 경우는 기타재료비가 전국과 충남이 각각 같이 5%가 줄었다. 과수원조성비는 전국의 경우 5%, 충남은 8%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비는 전국은 1% 감소한 반면에 충남은 5% 감소하였다. 배의 경우를 보면 기타재료비가 전국과 충남 각각 5% 줄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노지포도의 경우 기타재료비의 경우 전국과 충남 각각 9%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비를 보면 전국은 2% 증가한 반면에 충남은 11% 감소하였다. 세 번째 요소생산성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였다. 사과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보면 무기질비료는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유기질 비료는 2020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영농시설상각비, 과수원조성비, 대농구상각비, 농약비 그리고 고용노동비 등은 2019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는 유기질 비료비, 무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뚜렷한 패턴이 없고 격년제로 높고 낮음을 반복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다른 항목 영농시설비 등 5개 항목은 2016년 이후로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의 경우 전국을 보면 무기질비료비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유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수원 조성비 생산성은 최근에 감소하였다. 이외의 다른 항목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영농시설상각비의 해마다 진폭이 크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높고 낮음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떨어지는 경향이다. 그리고 다른 항목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노지포도의 경우 전국을 보면 무기질비료비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다. 유기질비료비 생산성은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농구상각비 생산성은 2019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과수원조성비는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는 뚜렷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매년 진폭이 심하다. 무기질 비료비 생산성은 격년으로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영농시설상각비도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 번째로 주요 과수 경영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사과의 경우 농약비가 전국 10.4%, 충남 10.6%으로 높았다. 영농시설상각비는 전국이 10.7%, 충남 15.4%로 증가하였다. 배의 경우는 영농시설상각비가 전국 10.7%, 충남이 11.7%로 높았다. 노지포도의 경우는 영농시설상각비 전국 20.3%, 충남 4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 : Time-series, Fruit, Variation.

T. 041-635-6091, F. 041-635-7921 Lch5127@korea.kr

▣ 본 연구는 2025년 충청남도 기관 고유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